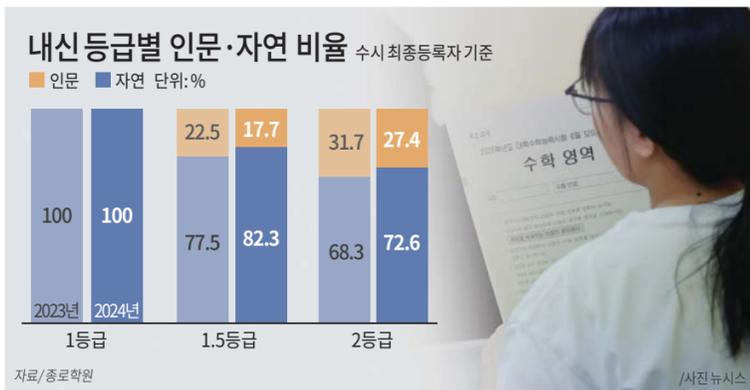


# 내신·정시 모두 '자연계열' 독식... 무전공으로 불균형 심화

종로학원, 대학 합격점수 분석  
수시 내신 1등급 전원 자연계  
1~4등급 전 구간서 격차 심화  
인문-자연계 불균형 더 늘 것



지난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자연계열 수험생의 독식 현상이 최상위권에서 두드러진 가운데, 4등급대까지 이어졌다. 수시 최종등록자 중 내신 '평균 1등급'을 받은 합격자 전원이 자연계열 학생인데 더해, 정시에서도 평균 백분위 점수가 가장 높았던 6명 모두 자연계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사실상 문·이과 관계없이 입시를 치르는 '무전공 학과'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이공계열 수험생의 입시 우위가 심화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학이 공개한 학과별 수시모집 일반전형 최종등록자 '상위 70%' 점수를 기준으로 성적대별 인원을 산출한 결과, 고교 3년간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 '평균 1.0등급'을 나타낸 합격자는 81명으로, 모두 이공계열 학생으로 나타났다.

에 더 격차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1~4등급 전 구간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종로학원 측은 분석했다.

2024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최종등록자 상위 70% 학생 중 내신 평균 1.1등급으로 합격한 인원은 432명으로, 이 중 97%에 해당하는 419명이 자연계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문계열 학생은

13명(3.0%)에 그쳤다. 평균 1.2등급인 학생은 총 1089명으로 이중 998명(91.6%)이 자연계열이며, 1.3등급의 경우 1929명중 1808명(93.7%), 1.4등급은 2935명 중 2634명(89.7%)이었다.

1.5등급 이내 합격선에는 최종등록자 3976명중 3272명(82.3%)이 자연계열, 704명(17.7%)이 인문 계열이다. '2.0등급' 기준 1만212명 중 7415명(72.6%)이 자연계열, 2797명(27.4%)이 인문계열이다. 이어 등급별 자연계열 비율은 ▲2.5등급 68.7% ▲3.0등급 63.7% ▲3.5등급 62.0% ▲4.0등급 61.2%로, 4.0등급 이내 전구간대 자연계열 합격생 수가 인문계열보다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이전 년도인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동일 패턴을 나타냈지만, 2024학년도에는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정시모집에

서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2024학년도 정시 학과별로 국어·수학·탐구영역 평균 백분위 점수 최고점(99.72점)을 받은 6명 모두 자연계열 학생이었다. 수능 '4% 이내'에 해당하는 1등급 구간대에 해당하는 국·수·탐 백분위 점수 평균 96.0점을 받은 2960명 중 2617명(88.4%)이 자연계열로, 인문계열은 343명(11.6%)에 그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러한 점수 분포상으로 볼 때 이과에서 문과로 합격한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서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인문, 자연계열 불균형이 더 크게 나타나는 대학, 학과가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험생에게 문·이과 합격자 차지 비율 등 학과별 입시결과 공개 시보다 정밀한 자료가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교육청, 디지털교육 전문교사 육성한다

디지털 역량 강화 400여개 연수 지원  
에듀테크·디지털교과서 등 내용 담겨

내년 3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직원 이 희망에 따라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수준·방식을 다양화한 입체적인 연수과정 400여개를 개발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 최초로 서울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연수 체계도 2종을 개발해 22일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수는 교사, 학교 경영자 등 교원은 물론 교육을 지원하는 직원을 모두가 대상이다.

내용은 ▲에듀테크·AI·디지털교과서의 이해와 교육적 활용 ▲AI 윤리 ▲

디지털 시민성 함양 등 디지털 기술이 수업·평가로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수 설계 전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연수 수준은 ▲에듀테크 활용 수업 기술을 따라하며 익히는 기본(탐색) 단계 ▲학습한 기술을 활용해 직접 자신의 수업을 설계하는 활용(실천) 단계 ▲자신이 설계한 디지털 기반 수업을 상호 공유하고 성장하는 심화(평가·성찰) 단계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전문가로서 동료 교원의 멘토가 되는 전문가(멘토링) 단계 등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연수 방식은 동·학년·동 교과 교사와의 연대를 통해 학교 단위의 변화를 촉진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기본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원격연수(마이크로 러닝 등) ▲거점형 대면 연수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 등으로 교사가 여건에 맞는 연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 등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400여 종의 연수를 현장의 교(직)원들이 쉽게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체계도 2종을 개발·배포했다.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서울형 교원 역량 강화 체계 운영을 통해 도전하는 학습자로서의 교사가 더욱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교원이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에 성균관대 선정

가천대 이어 두번째 컨소시엄 선정  
반도체 인력양성·기술혁신 플랫폼

경기도가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으로 성균관대 컨소시엄의 '경기도 반도체 인력양성·기술혁신 대학혁신 플랫폼'을 선정했다.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협회·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 기술지도, 공정 개선 등의 현장 밀착형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으

로 선정된 성균관대 컨소시엄은 성균관대를 주축으로 경희대·아주대·한국공학대·한양대ERICA가 참여하고 있다. 국내 손꼽히는 반도체 특성화 분야 연구 대학들이다.

성균관대 컨소시엄은 참여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공유·활용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연간 약 2500명의 실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시험 평가 인증, 공정 및 품질 개선, 마케팅 및 판로 지원해 기업의 혁신 성장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30년 7월까지 6년간 성균관대 컨소시엄에 매년 10억 원씩,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과 맞물려 지속적인 지식·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서울시, 8호선 연장 앞두고 혼잡도 완화

별내선 개통 대비 비상대책 수립  
평일 출근시간 예비열차 2회 운행

서울시는 다음달 10일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에 대비해 혼잡도 완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별내선 개통시 남양주, 구리 쪽 승객 탑승으로 기존 운영 구간(암사~모란)의 혼잡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비열차 투입,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예비열차 투입과 증회 운

행을 추진해 8호선의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약 3대 이상의 열차 투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약 170~180%로 전망되는 혼잡도를 15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암사역 출발 예비열차를 평일 오전 8시와 8시 18분에 2회 운행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 총 운행 횟수도 현재 하루 292회에서 324회로 최대 32회 늘린다. 특히 출근(아침 7~9시), 퇴근(밤 6~8시) 시간대에는 잠실역을 기준으로 각

5회씩 운행 횟수를 늘려 열차 1~2대 추가 투입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타 호선 예비열차 개조를 통해 1년 내 조기 증차하는 방안을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다른 호선의 열차를 개조해 활용할 경우 신규로 열차를 제작하는 것보다 비용은 8분의 1, 기간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혼잡도 증가가 예상되는 8호선 암사역 주변 지하철역과 주요 지점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 1개를 신설, 지하철 이용 인원을 분산키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7월 22일(월)  
음력 : 6월 17일

수도권 날씨  
25~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4/29, 동두천 24/28, 가평 24/29, 파주 24/28, 서울 25/29, 양평 24/29, 인천 25/28, 수원 25/29, 용인 25/29, 평택 25/31

해돋이 / 05:28 | 해질 / 19:4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트럼프 충격법, 드론으로 현장 조사... 원격 제어 폭탄도 준비" /사진 뉴시스  
▲ "미일, '대일 확장억제' 첫 공동문서 정리 방침"

▲ 중국 스촨성에서 돌발 홍수..시신 8구 수습, 30여명 실종  
▲ 이스라엘, 예멘 후티 호테이다항 보복 공습



▲ 美바이든, '사퇴' 결단 네타냐후 방미 이후 될까 /사진 뉴시스  
▲ 민주당 "바이든 이후"로 격돌... 해리스나 '미니 프라이머리'냐